

#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 차 공약 파기 논란

## 한미 전환시점 연기 안해... 2020년 중반 목표 야 “대통령 사과해야” 시민단체 “주권 포기”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용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 전력이 보장되는 2020년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미군 국방부 장관과 적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

보협의(SCM)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안·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

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다.

양국은 이들 3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3가지 조건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가인 2020년 중반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KAMD와 킬체인”이라면서 “그 사업의 완성 시점은 2023년이다. 2023년이 군사정찰 위성(도입이 된다)”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최종 결정한 이후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한 번 늦춘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가 된다.

한미는 연합사의 용산미군기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캠프케이시 잔류에도 각각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50여개 단체들도 이날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연기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라며 합의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 환경 현안 토론회로 해답찾기 광주시 환경생태국 매월 회의

광주시 환경생태국이 주요 현안에 대해 국·속·담·당·급(5급) 이상 공무원의 공직경험과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찾는 '소통과 공유 전략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략회의는 환경생태 분야 현안과 미해결 장기과제 등에 대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조직 내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급 이상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첫 회의는 지난달 23일 광주천을 시민이 보고 느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광주천 친환경 친수공간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논의된 내용은 해당 부서의 개선 계획 수립에 반영됐다.

두 번째 회의는 31일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사계절 꽃이 피는 행복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양심화단 조성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올릴 계획이다. 11월에는 '빛고을 산들길 활성화 방안', 12월에는 '아파트 중간소음 민원 해소 방안'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유용민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소통과 공유 전략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필요하면 수시 운영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회의 불참 '집단항명' 논란 유동국 광주TP원장 사퇴

민선 5기 핵심실제로 꼽혔던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 무단 불참 논란을 빚은 뒤 다음날인 21일 광주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5일 최종 수리됐다.

유 원장은 지난 20일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 이윤자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등과 불참해 '집단 항명'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원장은 27일 오전 이임식과 기자회견을 하고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유 원장은 강은태 전 광주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으며,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강 전 시장의 선거캠프인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 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민선 5기 최고 실세로 떠올랐다. 강 전 시장의 취임과 함께 그해 12월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말 연임하면서 2016년 12월 20일까지 임기도 연장됐다.

유 원장의 사임으로 이윤자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등 민선 5기 때 임명된 시 산하 기관 임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후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추천한 각 4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전작권 전환조건 완비 수습조

KAMD·킬 체인 구축 17조

KF-X사업 등 35조~40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우리 군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전문화적인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 중반까지 독자 대응능력을 구축해 전작권을 조건에 기초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는 17조원이 소요된다.

올해에는 이미 1조1771억원을 배정받았다. 17조원은 군사정찰 위성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타우러스)을 도입하는 데 주로 투입된다. 이 예산은 군이 긴급 필요한 전력 확보에 한정되어 있다.

군은 정찰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을 2020년 중반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보면 국방비 배정을 축소하는 추세여서 군의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KAMD 체계와 킬 체인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전작권 전환 능력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전력 확보 예산에도 35조~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전 초기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격파하게 될 차기대안장로켓 사업비도 3조원에 이른다. 이 로켓은 내년부터 전력 확충 예정이다.

북한지역의 핵심표적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F-35A 도입에 7조3천억원,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도 18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여기에도 한반도 전체 해상을 커버하기 위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건조와 2020년대에 전력화되는 3천t급 잠수함 1~3번함 등의 건조에도 6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란 세례맞은 보수단체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진보단체 회원들이 던진 계란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 대북전단 살포 '남남갈등' 유발

임진각서 보수-진보단체 충돌... 일부는 김포서 날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는 25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충돌, 온종일 시끄러웠다.

정치권과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촉구했다. 경찰은 14개 중대 1000여 명을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북한군의 도발 위협에 전방 부대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결국, 보수단체는 주민들의 저지로 임진각에서는

물론 통일전망대 인근에서도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했다. 다만, 일부가 김포로 이동해 어둠 속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 2만 장을 풍선 하나에 매달아 날렸다.

◇전방지역 주민 트랙터 몰고 와 살포 저지=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전방지역 주민들은 오전 9시부터 농사용 트랙터 19대를 몰고 와 임진각 진입로를 막았다.

임진각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11시 20분께 첫 충돌이 발생했다. 진보단체 회원 일부가 풍선 주입용 가스 등을 싣고 대기하던 트랙터를 기습, 상자 5개에 담긴 대북전단 일부와 풍선을 훑기로 찢어 인근에 버렸다.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무산=이날 오후 3시께 보수단체는 서울에서 새 풍선을 가져와 전단 살포를 다시 시도했으나 진보단체에 다시 막혔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모두산 통일전망대로 이동해 대북전단을 날리려 했으나 인근 지역 상인들이 입구를 트랙터와 차로 막았다.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 하자 상인 100여명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물러와 저지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매선 30여대)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 울트라, 세이저, 에너젯 복합치료  
② 에드용 레이저 : 스쿠스원, 아라울, 브이엠, 프락셀  
③ 케모데이아 치 : 켈로맥스, 디오이오드메드  
④ 피부 미백 : 무데나스원 엑셀V, 켈로맥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홍반 : 프락셀유얼, 울트라맥스임플로, 프락셀리 인트라세, 프락셀 세나  
⑥ 모공 : 켈티지, 프락셀5종  
⑦ 비만 : 내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질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초기 아찔,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40611-증-59153호